

ISSUE & FOCUS

Newsletter 2016-11(2)

제2개국(제2독립)의 새 주류 형성 - 배반, 반성, 참회를 거친 승화만이 개혁의 길을 연다.

김진현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지금 대한민국과 한 민족은 1876년 서세동점 앞에 문호개방이후 네 번째(1905-10, 1945-50) 그리고 140년만의 최대위기, 절대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안도 위기이지만 남북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합쳐보면 더욱 위기입니다. 지구촌 전체를 보면 문명사적 전환기 위기입니다. 특히 우리 안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산업 금융 기업 고용 노사 가계 가족 사회 교육 종교, 어느 분야를 보아도 모두가 자생적 개혁능력을 상실한 perfect storm앞에 발가벗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총체적 위기를 피해갈 자유로운 사람, 기관, 제도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 절대적 위기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사람, 기관, 제도는 없습니다. 세월호, MERS, 우병우, 최순실... 박근혜 정권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이름이 되어버린 이들 이름 뒤에 붙은 '사태', '사건', '스캔들', '게이트'들에서 우리는 '박근혜'가 얼마나 잘못된 대통령임을 비판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잘못된, 그런 트라우마 덩어리가 국회의원, 당 대표에다 대통령까지 된, 그런 결과가 일상이 된 이 나라의 정치행태, 정치문화, 투표 행태에도 자괴해야 합니다. 이 참담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여러 방안 대책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국가냐고 통곡하는 절절한 비극 앞에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왜 초대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최후가 국가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너무나 비극적일 뿐 아니라 때로는 가족스캔들로 이 나라 얼굴에 먹칠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원초적 진실’을 깊이 그리고 또 깊이 묻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의 대통령도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그 인격을, 그 사람됨을 우러르라고 권장할 착한 인간, 나라의 어른이 없었을까요. 망명하고 총 맞고 자살하고 아들, 형제, 사돈들이 그리고 본인들까지 부패로 감옥 가고, 이제 그 차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왔습니다.

이러고도 나라의 근간이 튼튼해지고 나라가 전진할 수 있다고 믿는 배짱 폭론이 왜 이리도 오래 지속되어왔을까요. 그 주변에서 안주하고 출세한 사람들 그리고 언제나 편한 기회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만큼 잘못 고치는 국민비판 능력이 증명된 게 아니냐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맞다면 한두 분 대통령 비극으로 그치고 그 교훈이 잘못된 리더십의 정치문화와 잘못된 정치제도 개혁으로 진전되고 고급정치는 못되더라도 보통의 정치로 정상화 되었어야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 리더들은 확실히 나라의 모범된 인격으로 거듭났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1987년 이후로는.

세계최고의 노인 빈곤율 자살율, 그러면서도 청년 실업률, 대학졸업생 실업률은 통계작성 후 최고의 나라가 되었고 세계최고의 이혼율, 낙태율, 성형 수술률, 화장품 사용률, 사기죄, 위증죄 고소율 그리고 세계최저의 출산율, 재벌 집안치고 부자, 모자, 형제자매간에 집안싸움으로 사법부에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는 리더십으로 경제가 개혁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가족해체, 사회공동체소멸이 유교전통의 나라, 대한민국 2016년 기록들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우연입니까? 가족해체, 사회공동체 소멸, 국가공동화라는 절대적 위기는 원인 없이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공동체와 가족의 어른이, 근간이 부패했고 인륜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물, 제도, 기관과 기업도 사회공동체, 국가 그리고 역사도 그 주인공들이 도덕적으로 퇴행하고 심성, 감성, 지성이 부패하고 영성이 쇠멸하면서 후퇴, 해체, 자멸,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에서의 정통성으로 보나 근대화과정에서의 성취 즉 정치민주화, 시민, 자유, 근대경제성장, 사회다원성, 교육·과학기술, 선진화, 해외로 뻗는 시민들 성공의 기록으로 보나 1945년 이후 독립한 140개 가까운 제3세계 국가 중 자유·평등·진보 등 공화의 가치를 제도화 한 유일한 나라로 인류사적 기록과 공헌을 남긴 인류의 자산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이 성취한 특히 건국이후 성취한 자랑스러운 기록이 동서양을 융합할 수 있고 21세기 인류미래를 열

수 있는 근거(context)와 뿌리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하는 자랑스러운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취는 우리 모든 국민, 참여자 심지어 반면 거울로서의 참여거부자들까지 포함한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2016년 오늘 내우외환의 세기적 민족적 절대 위기에 처했습니까. 성공의 신화, 기적의 영웅화에 도취했기 때문입니다. 자만과 안주가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와 그 부하들과 재벌들만이 했고 민주화의 기적은 YS·DJ·노무현 심지어 JP같은 권모술수 정치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영웅화 신격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의 기적은 탄허스님의 말씀을 빌리면 ‘선조들의 인고와 보복하지 않은 공덕의 은덕이고 현실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려는 서민들의 너무나 눈물겹고 심지어 신성스럽기까지 한 순정 희생의 덕’입니다. 그리고 후발자의 이익과 외부의 원조와 지도까지 합쳐진 덕입니다. 물론 현대나 대우노조 때문도 아닙니다.

이제는 겸손해야 합니다. 반성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승화하고 부활해야 합니다. 제2의 독립, 140년만의 제2의 개국을 각오해야 합니다. 성공의 신화, 기적의 주인공을 자부하는 이들, 그 주변에 주군 모시는 엘리트들에게 호소합니다.

배반하십시오. 당신 주인들을 객관화시키고 진정으로 길게 살리기 위하여 온건한 배반을 하십시오. 나라의 절대위기를 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평화의 대의를 위하여 소리를 배반하여 주십시오. 당신 주군들의 화려한 묘소 가꾸기와 기념사업회 꾸리기와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그런 시간과 돈과 정성으로 당신 주군들의 성공신화 만들기에 희생된 사람들, 소외시킨 사람들, 희망을 잃은 흙수저 젊은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을 배반하십시오. 박근혜 지지 보수세력에서 진작 배반자가 나왔더라면, 박근혜 대통령되기 전부터의 ‘친박연대’가 진작 정성어린 배반자가 되었더라면 최소한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기득권들도 개과천선 하니 이 나라의 새 기둥이구나 어른이구나 하는 감격을 만들어 보십시오.

가장 철저한 배반과 반성과 참회를 통하여 이 나라 주류, 정체성의 주류를 새로 세워야 합니다. 경제 제1주의의 신화가 결국 얼마나 이 나라의 정신을 부패시키고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까. 민주화 제1주의가 얼마나 이 나라 공동체규범을 무너뜨리고 ‘민주화운동권’의 시대역행 행태가 정치문화를 오염시켰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더 양보해야 하는데 더욱 더 탐욕했고, 신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하는데 더욱 더 군림했습니다. 그리하여 존경과 인내와 양보와 소통이 단절된 나라,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간의 신뢰, 사람과 제도간의 신용, 시민과 국가(사회공동체)간의 연대협력이 무너진 나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 제1주의와 ‘민주화운동권’ 제1주의가 만든 가장 극악한 결과는 이 땅에서 주류로 컸어야 할 건전 개혁보수와 온건 나눴(박애) 진보세력의 싹을 잘라버렸고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세력이 연대할 수 있는 중도의 기반을 황폐화 시켰습니다. 지금 위기도 이 원죄를 씻고 새 주류를 만들어야만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한국보수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김일성 3대 왕조 전체주의와 부패보수입니다. 누가 부패보수를 키웠습니까. 지역기반에 안주하는 사이비보수 반자유보수입니다. 한국진보와 야당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김일성 3대 왕조 신정(神政)과 사이비진보입니다. 누가 사이비진보를 키웠습니까. 역시 지역폐쇄, 사이비통일세력, 사이비민주화세력입니다.

더욱 우리를 전율케하는 것은 140년 전 문호개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위기 앞의 적전분열(敵前分裂)현상입니다. 위기 자체보다 위기에 대처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미래 준비가 부족했고 위기 앞에 적전 분열하는 내부 갈등으로 굴욕, 피식민, 분단·전쟁의 비극을 맞았습니다. 1953년 이후 평화—한반도 개방이후 가장 긴 평화도 엄격히 따지면 자생·자력·자립의 평화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지금 ‘역사의 끝(The End of the History)’도 끝났고 Washington Consensus도 Beijing Consensus도 globalization도 East Asia Miracle도 Asian community의 소리도 찾아들었습니다. 선진국도 후진국도 내향의 민족주의 보호주의, 인종 언어 종교의 대립과 분열, 정치와 경제의 포퓰리즘, 반자유주의 반진보주의, 반다원주의, 반지성주의, 반이상주의, 반엘리트주의의 반동이 휩쓸고 있습니다. 허무주의가 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베껴야 할 model이 아닙니다. 물론 시진핑의 중국도 아베의 일본도 푸틴의 러시아도 투테르테의 필리핀도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 모델이었던 스위스도 이스라엘도 스웨덴도 한 부분만 배울 점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 합니다. 제2의 개국, 개벽이란 뜻은 진실로 우리의 주체적, 자생적 힘으로 나라와 사회공동체와 시민의 평화와 안전과 삶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독립, 140년만의 독립, 자립, 자주를 찾는 것입니다. 안보자립의 의지, 평화독립의 의지, 생명자원(에너지, 먹거리, 물, 환경)자립의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전통과 근대의 기록을 미래 21세기 지구촌 새 질서 창조의 요구와 충실히 맞물리면 개벽의 길, 부활의 길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신화와 기적 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2016년으로 상징되는 140년만의 대한민국 한민족 절대위기 생성의 죄인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속에 지니고 있는 성취와 해체, 허세(虛勢)의 외형과 내실의 빈곤이라는 극단의 양극성을 배반, 반성, 참회의 용광로를 거쳐 여과, 발효, 승화 시킵시다. 진실에

대한 외경, 역사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믿음, 인의 자비 사랑에 대한 충실로 참회하면 반드시 부활의 길, 개벽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지나간 140년은 피식민, 가난, 분단, 전쟁의 눈물의 시간이었으면서 동시에 성공, 개척, 번영, 평화의 환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140년의 경험을 겸손히 여과, 발효, 승화시키면 새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런 지난날을 참되게 배반, 반성, 참회하면 새 주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새 주류에 의해서만 자주, 독립, 새 문명창조의 제2개국 제2의 독립이 옵니다. 이 나라와 세계가 필요한 제3의 길, 개혁보수와 온건 진보로 짜여진 새 주류가 제2의 개국, 제2의 독립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140년만의 독립자주의 새 길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 지구촌이 부르고 있습니다. 배울 모범의 나라가 살아진 인류지구촌에 21세기 새 문명, 새 대안질서, 창조의 길을 찾는 것이 또한 제2개국 제2독립으로 가는 동행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배반합시다. 반성합시다. 참회합시다. 그리하여 승화하여 대한민국의 새 주류로 나섭시다. 제2개국, 진짜 독립의 길을 엮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